


'개발자 문화' 최고기업은... 카카오·우아한형제들

입력 2022.07.18. 오전 9:11 - 수정 2022.07.18. 오전 10:56

 김병채 기자 >

 1  1

■ ICT - 국내 278곳 대상 설문조사

개발환경·협업방식 등 좋은평가

업스테이지, 스타트업 유일 만점

‘한국에서 최고 개발자 문화를 가진 곳은 어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개발자가 고연봉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개발자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찬 아마존웹서비스(AWS) 수석에반젤리스트와 원티드랩은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278개 기업에 재직 중인 개발자 4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윤 에반젤리스트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news1

우아한형제들, 무료 외식업 교육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 개점

입력 2022.07.20. 오후 2:54 - 수정 2022.07.20. 오후 2:56

 김민석 기자 >

 3 

ㅣ 카페·베이커리 실습 스튜디오 마련·교육 프로그램 신설

우아한형제들 "인천공항에서 로봇으로 배달받으세요"

정세진 기자 | 승인 2022.07.15 10:43 | 댓글 0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내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배달 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맺은 지 10개월 만이다.


인천공항 로봇배달 서비스는 공항 이용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각 게이트에서 빵이나 음료를 주문하면 앉은 자리까지 배달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매장에서 가장 먼 250미터가량 떨어진 게이트에서도 로봇 배달을 이용할 수 있다.



주문은 게이트 앞 좌석마다 비치된 QR코드로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앱 내 QR 코드 리더 기능을 통해 가게와 메뉴를 정하고 결제하면 배달로봇이 주문 장소로 배달한다. 영문 페이지도 제작된다. QR코드를 스캔한 뒤 영문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결제는 내국인의 경우 기존 앱 결제와 동일하지만 외국인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이다. 로봇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내 각각 동편과 서편 탑승구 통로 중앙지역에 배치된다. 입점 가게는 동편 통로의 배스킨라빈스 인천공항 여아점과 던킨 인천공항 1호점, 서편 통로의 던킨과 파리바게뜨 인천공항 여아점으로 총 4곳이다. 로봇은 6대가 배치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입점 가게와 로봇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가게는 수수료나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카뱅 직원, 1인당 1억 손실...쪽박 위기 처한 우리사주

입력 2022.07.20. 오후 3:45 - 수정 2022.07.20. 오후 6:54

 차창희 기자 >

 141 

한때 8억 차익 전망 있었지만
주가폭락 속 보호예수해제 압박
크래프트론 직원도 6천만원 손실

4000명 사는데 관광객이 300만명씩 온다는 이탈리아 오지마을

입력 2022.07.20. 오후 9:21

홍지연 기자 >

 32 


   

이탈리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친퀘테레'
다섯 마을 통칭하는 이름 '친퀘테레'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1999년 이탈리아 국립공원으로 지정

친퀘테레(Cinque Terre)는 이탈리아 북서부 해안 리구리아(Liguria)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친퀘테레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 말로 '다섯 개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친퀘테레는 여태 알던 이탈리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계단식 농경지, 해안절벽 그리고 질푸른 지중해와 대조되는 알록달록한 작은 집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에서나 등장할법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네카 빼곤 매각·감원 공포... 뒤숭숭한 'IT 성지' 판교

입력 2022.07.20. 오전 11:16 · 수정 2022.07.20. 오전 11:56

 이회권 기자 >

 7  16

■ IT기업들 긴축 움직임 현실화

게임·포털 등 고꾸라진 실적에

연봉인상 릴레이서 분위기 급변

네이버도 올해 신규채용 줄이고

자금력 동원 '핵심 인재 붙잡기'

네카 계열사 직원들 "매각 반대"

일부선 처우 양극화에 집단행동

경기 판교에 자리한 A 중소 정보기술(IT) 개발업체는 지난달 개발자 3명을 내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20일 "다른 회사 개발자로 옮겨간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 이직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간 직원도 있었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이 시작된 셈"이라고 했다. 지난해 회사 설립 이래 최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던 네이버는 올해 채용 기조를 5년 차 안팎의 실무 경력직 중심으로 바꾸고 지난해보다 30%가량 채용 인원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늘 카카오보다 빨랐던 네이버, 실적발표 늦춘다 [아이티라떼]

입력 2022.07.20. 오후 5:18

진영태 기자 >

네이버가 처음으로 카카오보다 늦게 분기 실적발표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상장사 중에서도 속전속결 회계처리로 분기·연간 실적발표와 콘퍼런스를 순서에서 늘 선두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주요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2분기 실적발표와 콘퍼런스를 다음달 5일에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실적발표를 할 것이란 시장 예상이 빗나간 데다, 바로 전날인 4일엔 카카오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